오대산국립공원의

탐방로

오대산국립공원의 대표 탐방로, 비로봉, 상왕봉

상원사 - 비로봉 - 상왕봉 - 두로령 - 상원탐방지원센터
(편도 14.1㎞, 5시간 35분 소요)



상원사에서 비로봉까지는 3.5km로 비교적 짧은 거리이지만 탐방로 절반이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합니다. 정상까지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상원사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면 적멸보궁이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에 들러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맑은 날 비로봉 정상에서는 멀리 동해, 설악산 대청봉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상왕봉을 경유하여 두로령까지의 사이의 탐방로는 완만한 능선으로 이곳에서는 앞선 코스보다 여유가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볼 수 있습니다. 두로령에서 상원사로 하산하는 코스는 시야가 탁트여 탐방을 즐겁게 마무리하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 천연의 원시림, 두로봉

진고개 - 동대산 - 두로봉 - 두로령 - 상원탐방지원센터
(편도 16.3㎞, 6시간 40분 소요)



두로봉 탐방로는 아침 일찍 출발할 것을 권합니다. 진고개에서 출발하여 조릿대숲을 지나 동대산으로 오르게 되는데 북쪽으로 2.7㎞를 걸으면 차돌백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차돌백이에서 1.6㎞ 가량 걸으면 신선목이를 지나게 되는데 신선목이부터 두로봉 사이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두로봉에서 두로령 사이는 1.6㎞의 내리막 능선으로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두로봉 탐방로는 오대산 탐방로 중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동지방과 영서 지방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코스지만 총 길이가 16.3㎞로 충분한 체력과 물, 간식 등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오대천 맑은 계곡을 따라 걷는 선재길

월정사 - 회사거리 - 동피골 - 상원탐방지원센터
(편도 9㎞, 3시간 소요)



선재길은 월정사 후문에서 출발해 상원사로 오르는 구간으로 대부분이 완만한 평지 탐방로입니다. 회사거리, 보메기, 오대산사고, 자생식물 관찰원 등 오대산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 나 있는 9km의 숲길은 60년대 말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불교 신도들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 최고의 절경, 소금강

진고개 - 노인봉 - 소금강(무릉계)
(편도 13.3㎞, 7시간 소요)



진고개에서 출발하여 고위평탄면을 따라 완만한 탐방로를 오르게 됩니다. 1㎞를 지나면 수백여 개의 계단을 오르게 되는데 이 구간 외에는 크게 힘든 곳은 없습니다. 완만하게 오르는 숲속 길을 2㎞ 정도 지난 후 노인봉을 경유하고 소금강계곡으로 급경사를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노인봉 산장에서 낙영폭포 구간은 경사가 매우 급하고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낙영폭포 구간 이후부터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해집니다. 이 탐방로는 만물상, 구룡폭포, 식당암 등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명승 제1호로 등록되어있는 소금강 탐방로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오대산 옛길

상원사 - 북대 - 두로령 - 내면탐방지원센터
(편도 12.7㎞, 5시간 소요)



오대산 옛길은 과거에는 446호 지방도였으나 현재는 탐방로입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걷다 보면 청정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무릉도원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와 같은 자연의 원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코스로 골이 깊고 인적이 없어 태곳적 비경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아름다운 탐방로입니다.

봄의 야생화, 여름의 녹음, 가을의 추경, 겨울의 눈꽃이 아름다운 계방산

운두령 - 계방산 정상 - 이승복생가터
(편도 8.9㎞, 6시간 소요)



계방산 탐방로는 운두령에서 시작합니다. 운두령 첫 계단을 오르면 완만한 경사의 탐방로가 나옵니다. 탐방로를 오르며 걷다가 땀이 날 때쯤 쉼터가 나와 숨을 돌리게 해줍니다. 정상으로 가는 도중 전망대에서 멀리 설악산을 비롯해 서쪽으로는 태기산을 조망할 수 있고, 계방산 정상을 오르면 멀리 황병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남쪽 능선으로 향하면 권대감 바위가 나오는 중간 탐방로이고, 북동쪽 능선으로 나아가면 주목 군락지로 향하게 됩니다. 주목 군락지부터는 급한 내리막 경사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계방산 정상으로부터 2.4㎞를 내려가면 국립공원 경계 지역과 샘터가 보이고, 다시 2.4㎞를 내려가면 이승복생가터(야영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생화의 향연, 동대산

진고개 - 동대산 - 동피골
(편도 4.4㎞, 2시간 30분 소요)



대체로 완만하고 고른 경사의 탐방로인 동대산 탐방로는 여느 탐방로 처럼 계절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봄에는 야생화, 여름에는 실록, 가을에는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진고개에서 동대산까지 오르는 탐방로 주위에는 5월이 되면 얼레지가 군락을 이루어 장관을 이룹니다. 또 마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곳이 이 코스만의 특징이기도 하며 이외에 여러 종류의 야생화를 관찰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편도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동 수단을 알아본 후 탐방을 해야 합니다.

탐방로 예약제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동대산 탐방로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21년 기준 10월 약 한 달간입니다.
10월에 동대산 탐방로를 예약했다면 진고개탐방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안심밴드를 받아서 착용한 후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로 보는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홍보 영상





동대산의 노랑무늬붓꽃

오대산국립공원

입산 시간 지정제 안내

국립공원에서는 장시간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지대 비박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탐방로별로 합리적인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통제장소	동절기(11~3월) 입산-통제시간	하절기(4~10월) 입산-통제시간	비 고
상원탐방지원센터	05:00~15:00	04:00~16:00	북대 방향
적멸보궁 지킴터	05:00~15:00	04:00~16:00	비로봉 방향
진고개탐방지원센터	05:00~14:00	04:00~15:00	노인봉 방향
진고개	05:00~15:00	04:00~16:00	동대산 방향
동피골	05:00~15:30	04:00~16:30	동대산 방향
구룡폭포 지킴터	05:00~13:00	04:00~14:00	노인봉 방향
내면탐방지원센터	05:00~14:00	04:00~15:00	두로령 방향
운두령 정상	05:00~14:00	04:00~15:00	계방산 방향
삼거리	05:00~14:00	04:00~15:00	주목 군락지 방향
옹달샘	05:00~14:00	04:00~15:00	계방산 방향

참고문헌
〈장성규, 2008, 백두대간의 역사, 한국학술정보(주)〉
〈김성일외 1명, 2011, 백두대간보호지역의 IUCN 관리 카테고리 적용 연구, 한국산림과학회〉
〈우명길, 2018, 조선시대 산수유기에 나타난 백두대간 인식, 강원대학교〉
제작 담당 자연환경해설사 김성남 / 감수 국립국어원 교수 김주미